

IIRI Online Series

주독미군 감축을 통해 본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신 경 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육군소장(예)

2020. 8. 13

주독미군 감축을 통해 본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신 경 수 |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육군소장(예)

주독미군 감축과 재배치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전 지역에 걸쳐 64,00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 중 36,000여 명이 독일에 배치되어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는 유럽 전역의 미군을 지휘하는 미 유럽사령부는 물론, 미 아프리카사령부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는 유럽 및 아프리카 전구작전을 책임지는 핵심 지휘시설과 전력들이 주둔한다.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11,9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철수 병력 가운데 2기갑연대 등 일부 전력은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겠지만, 5,600여 명은 유럽에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미 유럽사령부와 특전사령부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사령부도 독일을 떠나 새로운 주둔지를 모색하고 있다. 미 5군단 주력부대 등 1,000여 명이 폴란드에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F-16 전투비행대대, 방공포병대대, 공병대대, 항공대 등은 벨기에와 이탈리아로 이전할 계획이다.

주독미군 재배치 결정 배경과 의미

주독미군 감축 배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동맹국 안보부담 증대요구에 대한 독일

의 반발이 주독미군 감축을 촉발시켰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동맹 유지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8개 나토(NATO)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영국, 폴란드 등 8개국만이 2%를 넘기고 있으며, 독일은 1.3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은 주독미군 감축을 미 국방전략에 따른 전략적 조정이며 국방전략목표 이행을 위한 재균형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테러리즘을 물리치는 데 적합하도록 역량과 배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위협이 증대되는 흑해 등 전략 요충지에 대한 미군의 순환전개 확대는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미 유럽사령부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공동 위치 결정도 대비태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독미군의 조정은 미군의 전 세계 전략구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미국의 국방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미 국방전략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리즘을 5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패권추구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미군의 전력운용 등 대비태세 조정도 이러한 국방전략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국방전략 10대 핵심목표(targeted goals)를 통해 중·러에 대한 기존계획을 재검토하고 국방부를 중국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은 미 국방전략의 핵심이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최일선에 위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절약되는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은 철수하는 미군 병력들이 유럽은 물론 하와이, 괌, 알래스카 등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북아 지역 주둔 미군의 조정

미 인도태평양사는 동북아 지역 주둔 미군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중국 견제를 고려하는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미일동맹은 오랜 기간 중국을 가장 높은 위협으로 상정하고 대비해왔다. 주일미군이 중국 견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미군은 이러한 전략상황 속에서 주일미군의 규모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반면,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및 위협 대응에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은 강화되겠지만, 기타 전력의 재조정이 검토되는 이유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해·공군과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전력에 중점을 둔 구조로 주한미군을 변화시킬 것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 무기체계 첨단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상호운용성 확대 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화력여단, 항공여단, 정보여단 등을 순환배치로 전환하거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조정될 수 있는 전력은 실사격 훈련여단 등 한반도 주둔여단이 제한되는 항공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독미군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부담 확대요구 등이 반영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판단에 의해 주한미군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 미흡을 감축 이유로 내세울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조정과 우리의 대응

주한미군의 조정은 미 국방부의 전 세계 및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선순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다. 주한미군 조정 관련 아직까지 양국 국방부 간 구체적인 논의는 없어 보인다. 최근 미 국방 고위인사들은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 결정된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변화가 있다면 양국 국방부 간 사전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21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하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사전에 적절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이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및 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소요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건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보인다.

주한미군은 1955년 325,000여 명에서 출발하여, 2008년 4월까지 총 6차례의 조정을 거쳐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정은 미·소 데탕트, 미·중 관계개선, 이라크 전쟁 등 시대적 상황과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뤄졌다. 아이젠하워 정부의 ‘New Look (대량보복 전략)’, 닉슨 독트린, 카터 대통령의 안보원조와 인권 결부원칙, 동아시아 전략구상 등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주한미군의 조정은 상호방위 조약 체결, 주한미군 핵무장, 한국군 현대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신설, 한미연합사 창설 등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으로 이어졌다.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의 주된 요인은 미국의 전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주한미군 조정이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면,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되도록 선제적, 주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목표, 우선순위,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한 우리의 대응전략 발전이 시급해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능력이 개선되고 첨단전력이 강화됨으로써,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억제력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주한미군 조정 시 미국이 추가적인 안보공약을 제공하였음을 고려하여, 확장억제 등 지속능력 제공을 미국이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우주 및 사이버 연합작전사령부 설치 등 우주 영역 협력 확대도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끝/

저자 소개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한 뒤 전역하여 현재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합참 및 육군에 대한 정책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군 생활시에는 국방부 및 한미연합사에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였다. 신경수 장군은 미국 지휘참모대학, 핀란드 UN PKO 훈련센터, 영국 왕립안보연구소, 이탈리아 NATO 방위대학, 미국 아태안보연구소 등에서 학생장교 및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소말리아, 이라크 파병 근무경험도 갖고 있다.

(이메일: shinks2011@gmail.com)